

#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결정과 직업만족도 요인 분석\*

강혜정\*\*

### Keyword

청년대졸자(Young College graduate), 농림어업 취업(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jobs), 직업 만족도(Job satisfaction)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jobs in the industries by using data from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The Logit model is used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young college graduates' choice of employment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Ordered Probit model is used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overall job satisfaction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ults indicate that graduates from agricultural colleges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employment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hen their spouses' vocation is related t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he industrie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their aptitude and interest are or the brighter the future prospects for agriculture ar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wage or income, job stability, and working hours, the larger overall job satisfaction is. In addition,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job - related education or training is, the higher overall job satisfaction is. Consequentl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need to provide on-site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차례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용한 자료 | 5. 요약 및 결론 |
| 3. 분석모형   |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7473).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e-mail: hjkang@jnu.ac.kr

## 1. 서론

최근 청년 실업난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업은 곧 고학력 실업자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대졸 실업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진학률 상승과 장기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한 신규 일자리 부족, 그리고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인구 고령화 심화와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주 대상은 20, 30대 청년이며, 이 중 대학생 대상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농업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귀농희망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농창업특성화사업<sup>1</sup> 과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농업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이 청년대졸자 취업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청년대졸자의 관심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최근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졸자의 신규 일자리로 농림어업분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0년과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20, 30대 청년 농업종사원의 비중은 2010년 7.0%에서 2015년 4.2%로 그 비중은 하락하였으나, 청년 농업종사원 중 대졸자 비중은 2010년 47.3%에서 2015년 5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대졸자의 농림어업 법인 취업 비중까지 고려한다면, 농림어업 일자리에 청년대졸자 취업 비중은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정기수(2018)는 농업경영체에서는 농업고등학교 재학생이나 농업 관련 전공자에 대한 채용 만족도가 높았으며,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입장에서 농업 관련 근무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 전공 인력의 농업 관련 산업으로 연계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sup>3</sup>

이와 같이 농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취업<sup>4</sup> 수요가 변화

1 전북대, 전남대, 연암대, 경북대, 충남대 5개의 영농창업특성화 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선정 및 지원을 받아 현장 실습 중심의 농업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정착 후계 인력을 양성한다.

2 2010년과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3 '농림어업 최근 고용 동향과 대응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9.18.).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 취업에 대한 정확한 특성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므로, 농림어업분야를 청년대졸자가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 취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유입 및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농림어업분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농림어업분야 일자리 만족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즉,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취업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분야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를 분석하여, 농림어업분야 일자리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농림어업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 전공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특성 및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관련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농과대학 졸업자 대상 진로현황 조사 및 농업인력 활용 방안에 관한 내용이었고, 전체 대졸자 대상 농림어업 취업 특성 분석은 거의 없었다. 마상진·박대식(2008)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를 통해 농업계 대학 및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파악하고, 농대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취농 의사결정과 관련한 실태 분석하여, 농업 관련 전공 대학생의 영농 분야 신규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농과대학 영농정착교육과정을 이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분석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철영(1998)은 농학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 관련 전공 대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최경환 외(2010)은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력 육성 방안으로 한국농수산대학 학과 신규개설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다. 김정태·배성의(2014)는 농학계열 대학 졸업생의 농산업 분야 취업률 현황을 조사하여, 가장 최근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대졸청년층의 농산업분야 취창업 경로 및 관련 변인 간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한 번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결정 요인 및 농

---

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농림어업분야 취업에는 다른 농장 및 농업법인에 상시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농장을 경영하는 창업농도 포함된다. 이용한 자료에서 농림어업분야 취업과 창업이 구분되지 않아서, 통합적으로 취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림어업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 내용의 차별성이 있으며, 또한 표본대표성이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sup>5</sup>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이용한 자료의 차별성이 있다.

## 2. 이용한 자료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시자료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모집단은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이며, 그 중 약 4%에 해당하는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를 실시하는 횡단면 조사이다. 조사 내용은 대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다.

본 연구는 현재 농림어업분야에 종사하는 대졸자의 특성과 직업적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 일자리가 있는 응답자 1만 3,371명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 응답자의 현재 일자리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자의 현재 일자리 분포

구분	빈도수	비중(%)
모름/무응답	5	0.04
농업, 임업 및 어업	97	0.73
광업	4	0.03
제조업	2,614	19.5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9	0.6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7	0.2
건설업	517	3.87

5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는 매년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전문대 이상의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학 중 경력개발과 취업경험, 졸업 후 구직기간, 구직경험, 직업과 임금, 노동시장 이동, 진로탐색, 직업훈련 및 자격증, 가계배경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로, 2006년 시작 당시 패널조사로 설계되었으나, 2012년 이후로는 횡단면 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인력수급전망 인프라구축방안의 과제로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통계이다(통계청 승인번호: 327004).

표 1. 분석대상자의 현재 일자리 분포 (계속)

구분	빈도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1,165	8.71
운수업	211	1.58
숙박 및 음식점업	652	4.8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50	7.1
금융 및 보험업	387	2.8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2	0.7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50	7.8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02	3.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1	5.62
교육 서비스업	2,297	17.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55	10.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46	2.5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341	2.55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업	2	0.01
국제 및 외국기관	7	0.05
합계	13,371	100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졸자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출생지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가 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 경남 등의 순이다. 농림어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비중은 51%로, 농과대학 졸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2. 농림어업분야 대졸 취업자의 특성

설명변수	변수 설명 및 생성방법	비중(%)
응답자 특성	특별시 및 광역시	24.7
	경기	15.5
	강원	4.1
	충북	6.2
	충남	9.3
	전북	6.2
	전남	9.3
	경북	9.3
	경남	10.3
	제주	4.1
	농림어업 관련 학과 졸업 여부	50.5
부모의 농림어업 종사 여부	53.6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경영주 여부	54.6

자료: 『2014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분석.

부의 농림어업 종사 비중은 54%로 나타나, 영농승계농 비중이 절반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종사 상 지위 측면에서는 경영주가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용 및 임시근로자로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대졸자 비중도 절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농림어업 종사 대졸자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항목의 중요도(5점 척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내용의 난이도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직장 만족도는 3.49점, 업무 만족도는 3.46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가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일치, 고용의 안정성 등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또는 소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 농림어업 종사 대졸자의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도 및 현재 일자리 만족도

설명변수	변수 설명 및 생성방법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 정도	근로소득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21	0.59	3	5
	근로시간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10	0.62	3	5
	자신의 적성, 흥미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30	0.74	2	5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3.69	1.06	1	5
	업무내용의 난이도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3.46	0.88	1	5
	업무량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3.72	0.70	2	5
	개인발전 가능성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15	0.75	2	5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22	0.81	2	5
	직장(고용) 안정성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15	0.82	1	5

(계속)

표 3. 농림어업 종사 대졸자의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도 및 현재 일자리 만족도 (계속)

설명변수	변수 설명 및 생성방법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현재 일자리 만족도	직장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49	0.81	1	5
	업무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46	0.76	1	5
	임금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22	0.81	1	5
	고용 안정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55	0.94	1	5
	근무시간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36	0.99	1	5
	발전가능성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42	0.99	1	5
	자율성과 권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68	0.92	1	5
	자신의 적성, 흥미 일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58	0.76	1	5
	직무교육훈련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34	0.85	1	5

자료: 『2014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분석.

### 3. 분석모형

본 연구는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식(1)과 같은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한다.

$$(1) y_i^* = x_i\beta + u_i$$

여기서  $y_i^*$ 는 대졸자의 농림어업 직업 선택을 나타내는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  $x_i$ 는 농림어업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벡터를 나타낸다.

모형 (2)은 관측 가능한 더미 변수  $y_i$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y_i = 1(\text{농림어업에 종사한다}) \text{ if } y_i^* > 0$$

$$y_i = 0(\text{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text{ if } y_i^* \leq 0$$

관찰 가능한  $y_i$ 와  $x_i$ 이 주어진 경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sigma^2$ 인 로지스틱(logistic) 분포를 가정하면, 로짓 모형은 다음의 분포를 따른다(Maddala 1983).

$$(3) \Pr(y_i = 1|x_i) = F(x_i\beta), i = 1, \dots, n$$

여기서  $F(x_i\beta) = [1 + \exp(-z)]^{-1}$ 이다.

위 모형의 추정을 위한 log-likelihood(log-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4) \ln L = \sum_{i=1}^n [y_i \ln F(x_i\beta) + (1 - y_i) \ln (1 - F(x_i\beta))]$$

두 번째 모형은 대졸 취업자의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용한 자료에서 일자리 만족도는 직장과 업무 만족도로 구분되고 두 변수 모두 ‘매우 불만족한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순서화된 자료 분석에 적합한 모형인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한다. 종속변수가 선호 서열 척도이거나 순서화된 이산값일 경우, 그 값은 숫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선형회귀 모형은 사용할 수 없다. 대신에 순서 선택 모형(ordered choice model)인 순위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이나 순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순위 로짓 모형과 순위 프로빗 모형의 차이는 오차항의 확률분포 형태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있는데, 순위 프로빗 모형은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따라서 대졸 취업자의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한다(Greene 2012).

$$(5) y^* = x'\beta + \epsilon$$

(5)에서  $y^*$ 는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를 나타내는 관측할 수 없는 잠재변수,  $x$ 는 설명변수 벡터이다.  $J$ 개의 응답 가능한 순위가 있을 때, 관측할 수 없는 변수  $y^*$ 와 관측할 수 있는 변수  $y$ 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순위 프로빗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6) y = 0 \text{ if } y^* \leq 0 \\ = 1 \text{ if } 0 < y^* \leq \mu_1$$



$$= 2 \text{ if } \mu_1 < y^* \leq \mu_2$$

...

$$= J \text{ if } \mu_{J-1} \leq y^*$$

$\mu$ 들은  $\beta$ 와 함께 추정될 수 있는 매개변수(parameter)로,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한계값을 의미한다. 이때, 오차  $\epsilon$ 가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6)에 대한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함수  $\Phi$ 는 표준 정규 확률밀도함수이다.

$$(7) \text{Prob}(y = 0 | x) = \Phi(-x'\beta),$$

$$\text{Prob}(y = 1 | x) = \Phi(\mu_1 - x'\beta) - \Phi(-x'\beta),$$

$$\text{Prob}(y = 2 | x) = \Phi(\mu_2 - x'\beta) - \Phi(\mu_1 - x'\beta),$$

...

$$\text{Prob}(y = J | x) = 1 - \Phi(\mu_{J-1} - x'\beta).$$

$$0 < \mu_1 < \mu_2 < \dots < \mu_{J-1}$$

$\text{Pr}(y_i = j)$ 를  $i$ 번째 응답자가  $j$ 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라고 하고,  $y_i$ 는  $i$ 번째 응답자의 만족도가  $j$ 일 때 1의 값을 갖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일자리 만족도가 나타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8) L = \prod_{i=1}^n \prod_{j=1}^J \text{Pr}(y_i = j)$$

이때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가 최대가 되는  $\beta$ 를 추정함으로써 최대우도 추정량을 구하고 대졸 취업자의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4. 분석 결과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현재 일자리가 농림어업분야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를 설정하고,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도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sup>6</sup> 설명변수들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을 산출한 결과, 설명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값이 1.02~1.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명변수 중 응답자 특성변수로는 출생지, 농과대학 졸업 여부, 그리고 부모의 농림어업종사 여부 변수를 설정하였다. 농림어업분야 취업 선택에서 대학 전공 및 학업내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농과대학 졸업 여부’ 변수를, 부모 직업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부모의 농림어업종사 여부 변수’를 포함시켰다. 수도권, 지방 등을 포함한 출신지역에 따른 농림어업 취업 선택 양상을 살펴보고자 출생지역 변수를 포함시켰다. 응답자의 직업관을 나타내는 일자리 선택 시 고려 항목으로 근로소득, 근로시간,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업무내용의 난이도, 업무량, 개인 발전 가능성,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직장(고용) 안정성 항목을 포함하였다.

모형의 유의성 검증 결과,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서 농과대학을 졸업한 자의 농림어업 취업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농림어업 취업도 전공분야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과계열 대학생들의 농림어업 취업 장려 정책은 다른 전공계열 학생들보다 정책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과대학 대상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 비해 충북, 전남에서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농림어업에 종사할수록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농승계농이 농림어업 취업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장려 방안으로 영농승계농 관련 정책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6 그 밖에도 응답자 가구의 지출, 소득, 자산 관련 변수들도 취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자료에는 이러한 변수들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서 설명변수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즉, 본 논문의 분석모형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응답자가 일자리 고려 항목으로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이 중요하다고 평가할수록 농림어업분야 취업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업무내용의 난이도와 개인 발전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평가할수록 농림어업분야 취업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중요시하는 대졸자일수록 농림어업 직업 선택 확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농림어업 직업에 대한 적성 발굴 및 흥미 유발을 위한 관련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표 4.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변수		추정계수	z값	
응답자 특성	농과대학 졸업 여부	3.050***	13.68	
	출생지역	경기	0.456	1.31
		강원	0.850	1.51
		충북	0.846*	1.72
		충남	0.559	1.23
		전북	0.588	1.21
		전남	0.705*	1.62
		경북	0.603	1.43
		경남	0.545	1.33
	제주	0.675	1.08	
	부모의 농림어업 종사 여부	2.641***	11.26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 정도	근로소득	0.155	0.81	
	근로시간	-0.261	-1.4	
	자신의 적성, 흥미	0.071*	1.4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0.044	0.37	
	업무내용의 난이도	-0.256*	-1.5	
	업무량	0.051	0.28	
	개인 발전가능성	-0.198	-1.11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0.227	1.18	
	직장(고용) 안정성	-0.176	-1.03	
상수항	-5.501***	-5.36		

Number of obs = 13,371

Log likelihood = -428.68401

LR chi2(20) = 350.06\*\*\*

주: \* p<0.05; \*\* p<0.01; \*\*\* p<0.001

출생지역 참조변인은 '특별시 및 광역시'임.

다음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농림어업 직업 및 업무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유의성 검정 결과,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수준의 의사결정 경계치(threshold)  $\mu_i$ 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농과대학 졸업자일수록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농과대학에서 습득한 관련 기술 및 지식이 농림어업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 직업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가 경영주일수록 직업적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비경영주 지위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농산업 취업보다는 창업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 또는 소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취·창업 확보를 위해서는 농림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의 안정성, 근로시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농림어업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갖는 장점인 탄력적인 근로시간,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직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일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림어업 직업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림어업분야가 적성 및 흥미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홍보하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무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농림어업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은 직업기술 향상 측면뿐만 아니라 직업의 만족도에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농림어업 업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고용의 안정성, 근로시간, 그리고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일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직장 업무와 차별되는 농림어업분야 업무의 장점을 부각하고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는 대졸자를 농림어업분야 일자리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육과정에서 농림어업분야 진로체험과 직업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농림어업분야 대졸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변수		직업 만족도		업무 만족도	
		추정계수	z값	추정계수	z값
개인 특성	농과대학 졸업	0.29*	2.61	0.19	0.7
	부모의 농림어업 종사 여부	-0.34	-1.19	-0.44	-1.59
	경영주 여부	0.93**	2.8	0.37	1.23
일자리 속성별 만족도	임금 또는 소득	0.86***	3.33	0.13	0.56
	고용의 안정성	0.44*	2.31	0.44*	2.41
	근로시간	0.30*	2.05	0.44**	2.82
	개인의 발전가능성	0.11	0.57	0.31	1.7
	일의 자율성과 권한	0.25	1.23	0.25	1.29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일치	0.52**	2.99	0.59*	2.42
	직무 관련 교육 또는 훈련	0.33*	2.36	0.05	0.22
	$\mu_1$	5.06***		3.56***	
$\mu_2$	6.23***		5.10***		
$\mu_3$	8.89***		7.38***		
$\mu_4$	12.37***		10.43***		
표본 수	97		97		
Log-likelihood	-55.92		-63.81		
LR chi2(11)	106.61***		86.14***		

주: \* p<0.05; \*\* p<0.01; \*\*\* p<0.001

## 5. 요약 및 결론

최근 대졸자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신규 일자리로서 농림어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졸자의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취업 활성화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농림어업 취업 대졸자의 특성 및 직업 만족도에 대한 실태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결정 요인과 농림어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농과대학 졸업자의 농림어업 취업 확률

이 높게 나타나, 농과대학생 대상 농림어업분야 취업 장려 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농과대학 출신 농업인 육성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중요시하는 대졸자일수록, 농림어업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이 농림어업 직업에 대한 친숙함과 흥미를 갖고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면서도 개인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적 자긍심 고취 및 소득 증대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졸자의 농림어업 직업 및 업무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과대학 졸업자일수록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대학에서 습득한 관련 기술 및 지식이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금 또는 소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았고, 고용의 안정성, 근로시간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보다 자유로운 근로시간 및 안정성 등의 농림어업 직업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소득 증대 지원을 통해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 취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직무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대학에서의 농림어업 관련 현장 교육과 훈련은 대학생들의 농림어업분야 적성 발굴뿐만 아니라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졸자의 실업문제 돌파구를 농림어업에서 찾는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농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우리의 농업·농촌에서 일자리를 찾는 대졸 청년층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함께 농림어업 일자리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 직업 선택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이용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에서는 농림어업취업 청년대졸자의 비중이 매우 낮아서,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취업자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문 또는 심층조사를 통해서 농림어업 취업 청년대졸자의 세부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정태·배성의. 2014. “농학계열 대학 졸업생의 농산업 분야 취업률.” 『농촌지도와 개발』 제 21권 제4호: 1093-1124.  
 UCI: G704-SER000009844.2014.21.4.004
- 마상진·박대식. 2008.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2018. “농림어업 최근 고용 동향 변화와 시사점.” 『농림어업 최근 고용 동향과 대응 과제 KREI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철영. 1998. “농학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하계 대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0권 제4호: 1-23.
- 최경환 외. 2010. 「한국농수산대학 학과 신규개설 타당성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Greene W. H. 2012, *Econometric Analysis*. Pearson.
- Maddala, G. S. 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Econometric Society Monographs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10.1017/cbo9780511810176

원고 접수일: 2018년 11월 7일
----------------------

원고 심사일: 2018년 11월 16일
-----------------------

심사 완료일: 2019년 6월 20일
----------------------